



성결의 새로운 물꼬를 터야 합니다

임기 마치는 이정익 총회장

100년차 총회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소회 한 말씀

“통상적인 총회장 역할을 감당하는 것만도 힘든데 100주년이라는 시점에서 신학과 역사를 정리하고 다가오는 한 세기의 비전을 모색하며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등 대업을 수행함에 참으로 버거웠습니다. 교계적으로도 성령 100주년, 새찬송가 발간과 사학법 개정 등으로 바쁜 한해를 보냈습니다. 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건강을 허락하신 하나님과 전적으로 후원해준 신촌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법적 공방으로 인해 오해를 받기도 하고 지방회 분리로 신경도 많이 쓰였지만 나름대로 소신 있게 법질서를 준수하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힘든 만큼 보람도 컸고 개인적으로도 영광스런 회기였습니다.”

역사적인 해이기에 많은 사업들이 있었다. 대표적으로 장기기증과 기념음악회, 기념대회에 대한 총평

“장기기증운동은 행동하는 성결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업이었습니다. 성결교회가 단일 단체로는 최고의 기

증서약을 함으로써 일반인들에게도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이제는 기독교가 물질을 베푸는 데서 나아가 삶으로 이러한 정신을 나누어야 합니다.”

“며칠 전 CTS를 통해서 백주년기념음악회 다큐(40일간 밀착취재)를 보았는데, 수많은 관계자들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며 준비하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교계행사 가운데서 가장 성공작이라는 평을 들어 흐뭇하긴 했지만, 전국의 성결인들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지방에서도 했으면 어땠나 하는 생각입니다.”

“기념대회는 일단 그 많은 좌석을 다 채울지 내심 염려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기우에 불과했습니다. 아울러그날 날씨는 물론, 야구시합이 대회 전에 끝난 점, 천여대의 버스가 사고 하나 없이 잘 귀가한 점, 10만 명의 함성으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사실들을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과 성결인들에게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는 숨겨져 있던 성결인의 신앙적 열기가 그대로 표출되어 성결교회의 저력을 유감 없이 보여준 역사적 사건이 되었다고 봅니다.”

여성과의 공동대회가 무산되었는데...

“백주년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였고, 양교단 임원들의 협의도 심도 있게 이루어지고 있었기에 기대가 컸습니다. 하지만 지난 역사 속에서의 피해의식과, 열세인 쪽의 심정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여성 임원들로서는 임시총회까지 준비하며 최선을 다했으나, 막판에는 재분열의 조짐까지 일어났습니다.”

“이런 상황이니 통합에 대한 결정권을 전적으로 위임해도 반응이 전무했고, 기념대회마저 끝내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비록 공동기념대회를 진행하지는 못했지만, 우리 교단만의 순수한 대회로 그 위상은 더 높아졌다고 봅니다.”

백주년 이후 우리 교단의 과제

“100년 이후 교단성과 방향, 마스터플랜을 세우는 일이 가장 큰 과제인데, 이제는 교회와 교단이 개인구원과 영혼구원이라는 본질적인 것은 잘 고수하면서 개인에서 나아가 다른 사람과 사회까지 성결케 하는 일에 주력해야 합니다. 성결은 혼자서만 떨어져서 구별되는 삶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들어가 녹아지는 소금과 같은 것입니다. 수동적 성결에서 능동적, 적극적 성결로 발전하기 위한 설교, 신학, 프로그램들이 먼저 개발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결의 새로운 물꼬를 터야 합니다. 우리가 사회를 보는 인식이 전환되면 사회가 교회를 보는 인식도 달라질 것입니다. 세상으로 나아가 뒤틀린 사회와 역사를 개혁하는 참여의식이 너무나도 절실한 시점입니다.”

101년차 총회의 주요안건

“먼저 몇 년째 임시로 쓰고 있는 헌법의 전면개정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우려하듯이, 개정 내용이 많으면 통과되기도 어렵습니다. 이번에는 꼭 필요한 것만 보완하여 상정할 예정입니다. 둘째로 100주년 후속조치입니다. 지난 5월의 열기와 뜻을 계승, 발전시킬 방안들에 대한 토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선교 2세기에 첫발을 내딛는 금번 총회에 전국교회와 대의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모든 성결교회가 지나온 100년보다 다가올 100년의 부흥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대의원들께서도 총회를 연례행사로 여기지 마시고 헌법과 토의사항을 관심 있게 지켜보셔서 심도 있는 회의가 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회의시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개회예배도 1시간으로 단축하여 첫째 날 모든 보고를 마치고, 둘째 날 여유 있게 정책토론과 회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모쪼록 마지막 날까지 성의 있는 참석과 관심으로 여러분에게 부여된 대의원권을 행사하시어 생산적인 총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샘**